

[도덕과 교육1]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Why should human beings be moral?

- 자료1 : PLATO, The Republic, book 11
- 자료2 : 사마천(司馬遷), 『史記』卷61 「史記列傳」 1
- 자료3 :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 통치와 잔혹 행위
 - 토론진행(5개조//30분/ 토론 장소: 2층 강의실 및 기타)
 - 발표(각 조 1명씩, 보고서 형식 대화체 기록 제출/ 보고서 1 쪽)
- 전체 정리(다음 시간)

자료 1: PLATO, *The Republic*, book II

“아주 아득한 옛날 희랍의 한 왕국, 리디아라는 곳에 한 목동이 살고 있었다. 그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더니 들판의 땅바닥이 갈라져서 큰 통로가 생겼다. 그 목동은 호기심에 끌려 그 속에 들어가 보았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금가락지만을 손가락에 끼는 송장이 있었다. 목동은 그 금가락지를 끼고 밖으로 나왔다. 그 반지를 끼고 그는 왕에게 양의 상황을 보고하러 왕궁에 갔다.

그는 다른 목자들 틈에 끼어 앉아 무심코가락지를 돌려보았더니 자기 자신이 옆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다시 다른 쪽으로가락지를 돌리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마술을 갖게 된 것이 알려져 그는 왕의 한 사환으로 채용되고, 그러자 그는 왕후와 간통하고, 왕후의 도움으로 왕을 공격, 살해하고 마침내 그 왕국을 차지하고 만다. 그가 이러한 행위에 사용한 금반지를 **가이게스의 반지(Gyges' ring)**라고 부른다.”

만약 내가 목동과 같이 그 금반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는 목동과 같은 짓을 하거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후자에 주목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모두 투명 인간이 되는 세상? | 투명 인간이 되는 절대반지🔮 | 플라톤의 『국가』 ...



Copy link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



지식채널



Watch on  YouTube

자료2: 사마천(司馬遷), 『史記』 卷61, 「史記列傳」 第1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이치(天道)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 **백이(伯夷)·숙제(叔齊)**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처럼 어진 덕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였음에도 그들은 굶어서 죽었다. 어디 그뿐인가? **공자**는 자신의 제자 가운데 오직 **안연(顏淵)** 한 사람만을 배우기를 좋아하는(**好學**) 제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안연도 항상 가난해서 조강(糟糠:술찌끼와 겨) 같은 거친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요절하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해준다고 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도척(盜跖:춘추시대 악랄한 도둑)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살을 회쳐서 먹으면서 포악 무도한 짓을 함부로 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天壽)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것은 어떤 덕행에 의한 것인가?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악한 사람이 천수를 누리는 것**”은 아주 크고 뚜렷한 사례들이다. 근세에 이르러서도 행실이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만하면서도 평생 안일하게 인생의 쾌락을 누리며, 부귀함이 여러 대에 그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만하고, 말할만한 때를 기다려 말하며, 길을 갈 때는 샛길(徑)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만 갔으며, 공명정대한 일이 아니면 분발해서 하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나, 사마천(司馬遷)은 이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만약 이런 것이 이른바 천도라고 한다면 그 천도는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자료3: 벨기에의 콩고 식민지 통치와 잔혹 행위

19세기 말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개인 식민지로 삼고 고무 채취를 위해 콩고 원주민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고무 채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원주민들은 손목이 잘리는 등 극도로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손목 잘린 콩고인들"로 상징됩니다.

당시 식민 통치의 잔혹성은 선교사들과 탐험가들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고,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콩고에서 1kg의 고무를 채취해서 벨기에의 본사까지 보내는 데 0.13 벨기에프랑밖에 안 들었는데, 그곳에서 1kg이 10프랑에 팔림. 무려 700% 이상의 엄청난 이윤이 남는 장사였던 것.

미국 UC버클리대의 아담 호크쉴드 교수는 자신이 쓴 책 '레오폴드왕의 유령'에서 벨기에가 이 지역에서 학살한 원주민을 1,000만 명으로 추산.

다크

[#벌거벗은세계사] 카카오 때문에 1000만 명을 죽인 하얀 악마?! 손목 절단까지... ..

다크
Copy 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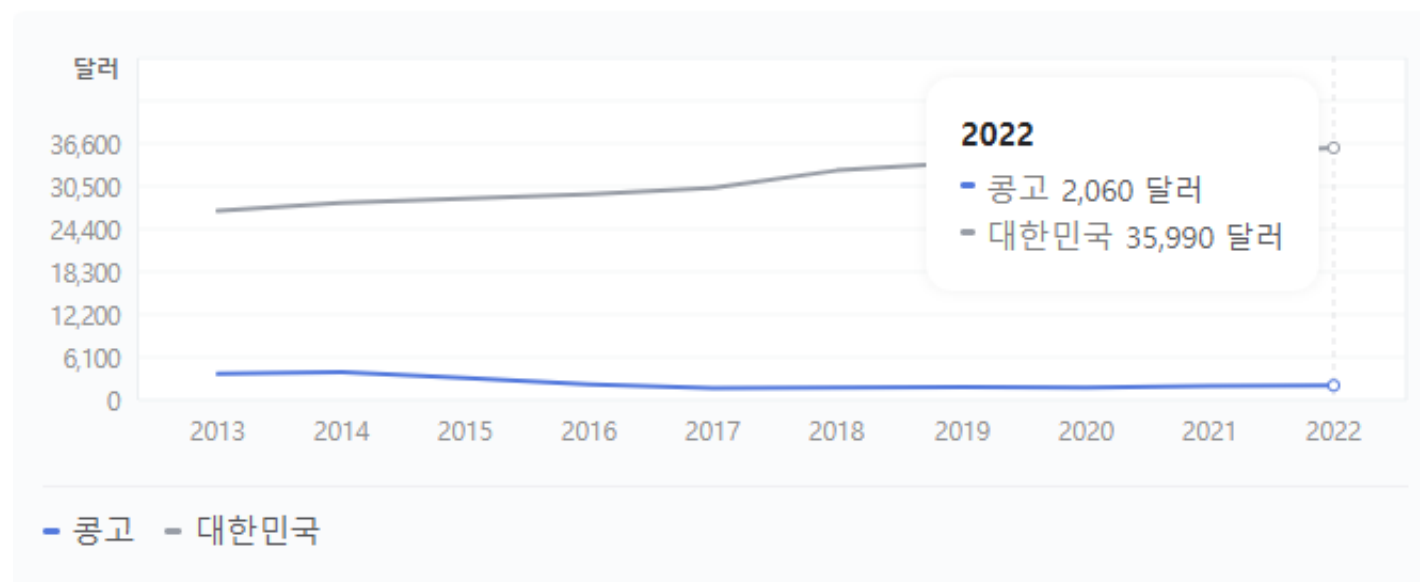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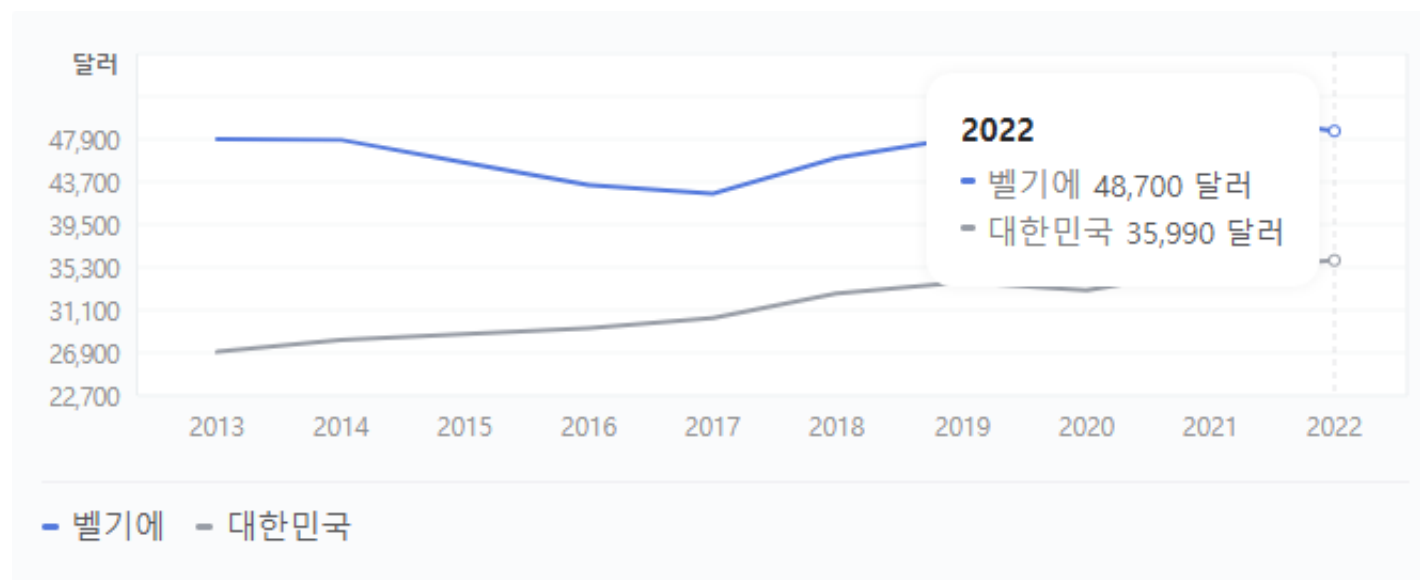
콩고의 학살자



(끔찍)

하루에 잘린 손목만 1,308개
베기에 왕의 만행

Watch on YouTube



왜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를 다루어야 하는가?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개념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만 해명될 수 있음.

인간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적 특성들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이해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곧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짐.

초등 교과서 분석

4학년

1

도덕 공부를 시작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도덕을 실천하는 것, 도덕 공부를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깊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생활 속 이야기

★ 도덕이란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살펴봅시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고 방 청소도 스스로 합니다. (자주)

게임을 더 하고 싶지만, 참고 정해진 시간만 합니다. (절제)

1인 1역은 매일매일 누가 보지 않아도 실천합니다. (책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 힘을 합해 해결합니다. (협동)

부모님께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



위와 같이 도덕은 바람직한 () (이)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람의 () 을/를 말합니다.

★ 위의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고 '도덕'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보기>

칭찬

효도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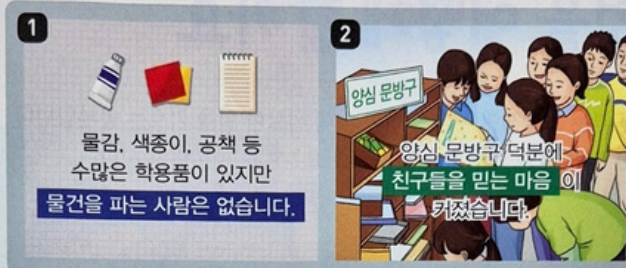
바른 길

노력

행동 규칙

생각 토크

★ 「양심 문방구」를 보고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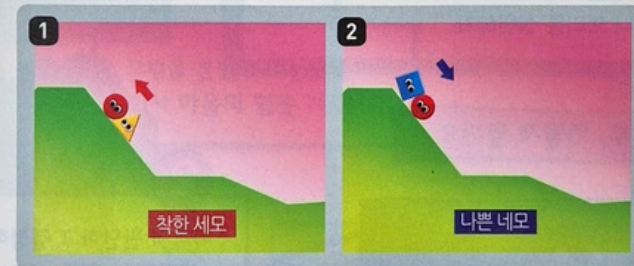
양심 문방구

도덕적인 삶이란 도덕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며 '도덕적인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도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도덕의 시작」을 보고 '도덕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도덕의 시작

★ 「도덕의 시작」을 보면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 일까요?

★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도덕 공부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덕과 도덕 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 꼭

★ 학교나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두세 가지 찾아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봅시다.



중등 교과서 분석

1학년 미래앤

학문적 반응의 두 갈래

윤리학의 최상위 질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해 온 이 질문은 윤리학의 근본을 관통하는 '가장 심오한 문제'로 평가받습니다. 도덕의 규범적 근거를 넘어서는 본질적 고찰

독이 든 성배

일부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어떠한 답변도 비도덕주의자를 설득할 수 없는 '가짜 문제'로 치부. 도덕을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무의미한 물음이라는 비판

의미 있는 삶과 도덕

주관주의 해석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그 한계

삶의 의미: 두 가지 관점

주관주의 (Subjectivism)

개인이 스스로 세운 목적과 가치에 따라 삶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관점. 외부의 도덕적 평가보다는 행위자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주관적인 만족감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짐.

객관주의 (Objectivism)

인간 본질의 실현이라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관점임.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의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주관주의 이론의 세 가지 비판

가치 다원화 시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 도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비판 1: 자기 평가의 오류

- 주관주의는 행위자가 자기 평가에 있어 완벽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짐.
- 인간은 잘못된 정보, 인지 편향, 비합리적 착각으로 인해 빈번히 오류를 범함.
- 집단 자살을 유도한 사이비 교주나,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라 믿는 가정폭력범 역시 자신은 옳다고 느꼈음.
- 따라서 삶의 평가는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상식과 기본적 도덕 원리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됨.

비판 2: 경험 기계의 역설

로버트 노직의 사고실험

당신이 원하는 모든 쾌락과 성취감을 뇌에 완벽하게 주입해 주는 '경험 기계'가 있다면 평생 그 기계에 연결되어 머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함. 우리는 가상의 만족감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의 접촉을 원하며, 내 스스로 '진짜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성이 삶의 의미에 결정적이기 때문임.



주관적 행복의 치명적 한계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

찰스 테일러(C. Taylor)에 따르면, 진정 의미 있는 삶은 욕구의 강도가 아니라 '질적 차이'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때 가능해짐. "나의 이 욕구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더 고귀한가?"를 따져 묻는 '강한 가치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주관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 선(善)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짐.

우리는 수동적 방관자가 아니다.

좋은 삶은 우리 자신의 운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 단순히 기분 좋은 경험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직접 '행동'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임. 환영 속의 쾌락은 진짜 가치를 결여하고 있음.

도덕을 향한 두 가지 질문

무엇이 도덕 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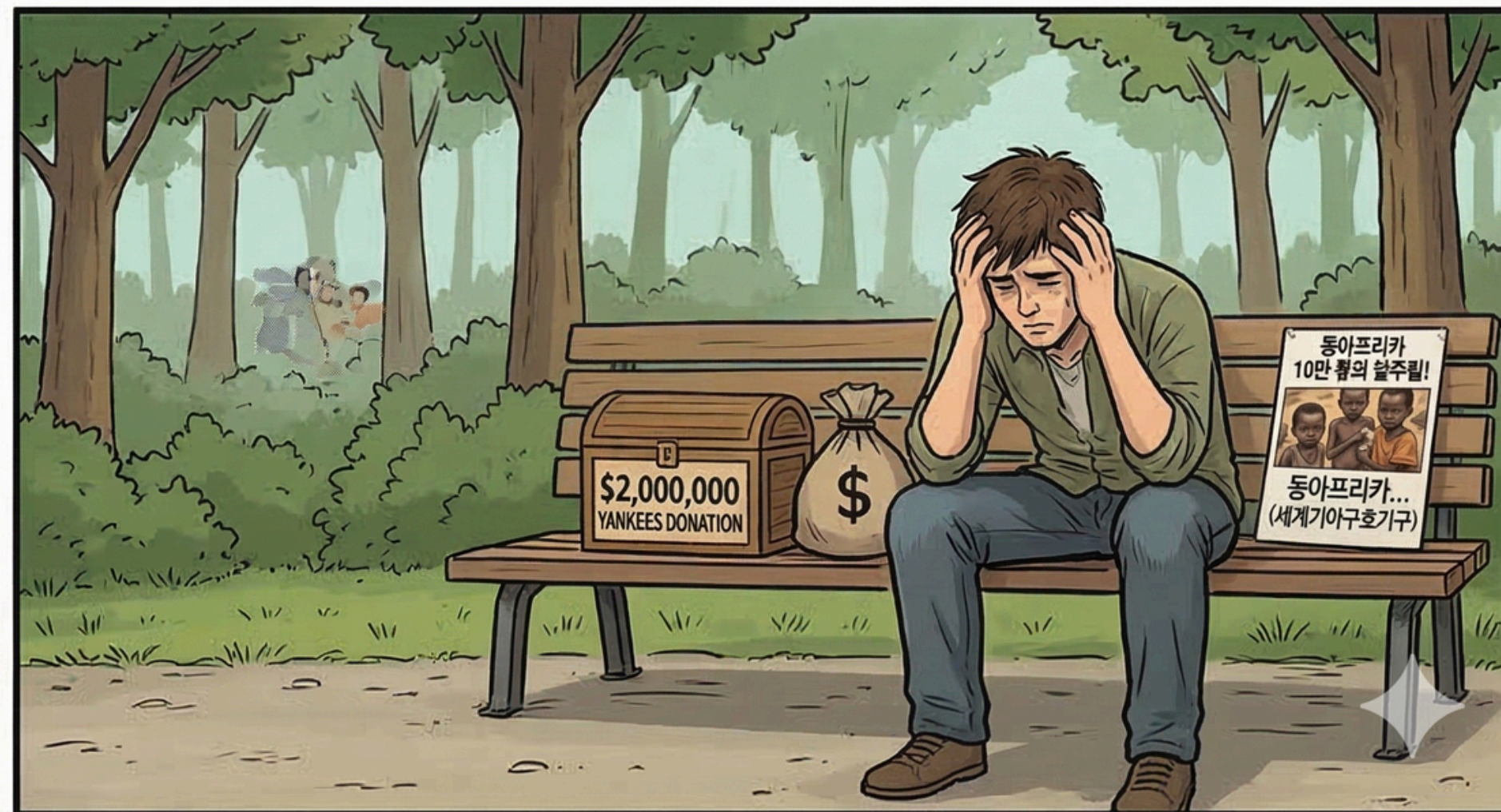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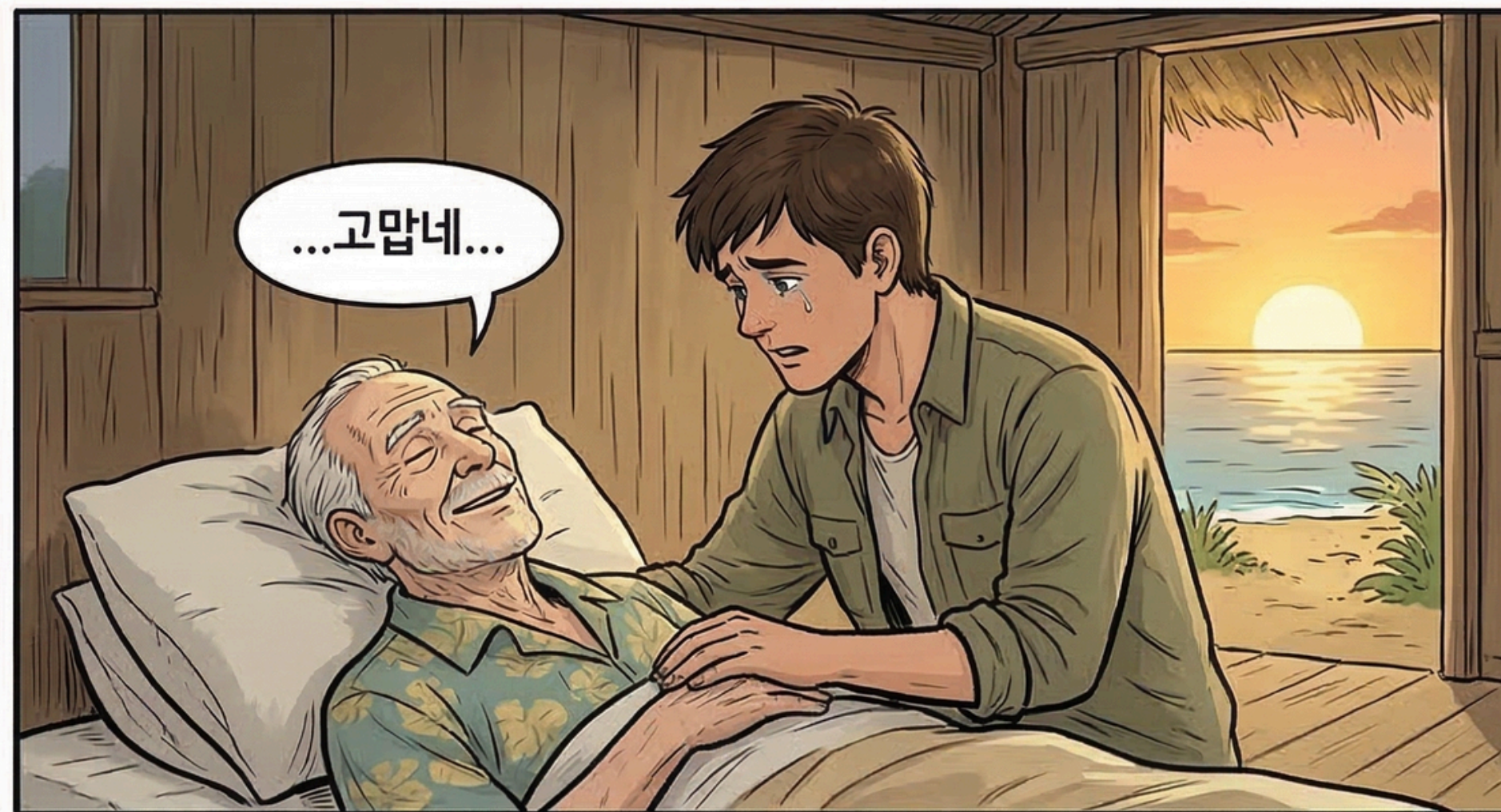
규범적 차원의 질문

이 단계에서 행위자는 도덕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무엇이 옳은가?"를 묻고 있을 뿐임.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동기화 차원의 질

여기서 발생하는 "내가 왜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규범적 근거와 행위 동기화 근거의 불일치에서 비롯됨.





도덕을 향한 두 가지 질문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당위(Ought)에 대한 규범적 물음

전통 윤리학과 철학이 집중해 온 주제임.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필연적 준거점을 전제하며, 인간 행위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려 함.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기준은 현실의 구체적 삶과 괴리되는 한계를 지님.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Is)에 대한 심리적 물음

도덕 심리학이 주목하는 현실적 현상임. 인간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도덕을 지키려 노력하는 실제 심리적 동기와 경험적 사실을 분석함. 우리는 당위 이전에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도덕적 지향성을 파악해야 함.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why should human beings be moral?

이러한 질문은

- ‘나는 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가?’
- ‘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라는 물음과는 다르다.

■ 후자의 질문은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고 있다. 이것은 윤리 내부에서의 물음이고, 일정한 윤리적 관점을 전제

■ 반면 전자의 질문(“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은 윤리 내부의 물음이 아니라 윤리학 (자체)에 대한 물음

■ 도덕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면, “내가 꼭 사람답게 살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라는 물음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질문이다.

□ 각 조 토론에 나타난 **이유 제시 방식의 검토:**

-① 개인적 **VS** 사회적 이유:

“자기 만족, 행복, 이익, 안전, 성장, 자아실현, 존엄성,
양심, 죄책감, 부끄러움, 인간다움”

VS

“사회질서 유지, 사회 이익, 사회적 약속,
공동체 공존 공영, ”

-② 외재적 이유 **vs.** 내재적 이유:

1. 외재적 이유;

1) 사회(학)적 이유(=사회질서 유지·번영·존속, 공존 공영 등)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人 또는 仁의 의미” “*Man in society, Society in Man*”

2) 심리적 이유(=도덕적 행위는 개인의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 최대화를 위한 행위:

윤리적 이기주의/ 공리주의/ 교환이론의 관점)

-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이다.”

= 이기적 동기와 자기중심적 가치의식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은 자연적 이기심을 전체적 조화와 질서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한다.

3) 양심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명령, 즉 ‘양심(良心)’이 있기 때문임. 양심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잘못했을 때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 이러한 양심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입장과 우리가 태어난 이후,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피하고 좋아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다고 보는 입장이 있음.

사회과학에서 “良心”의 개념?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해도 이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

양심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처럼 선천적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생득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상태, 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제도적인 것이고, 그것은 각 문화.사회.전통.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봄.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랜 생활 속에서 내면화되었기 때문)

외재적 답변의 한계

1) 신의 명령의 한계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에게는 도덕을 지킬 동기가 즉시 소멸됨. 또한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령함, 명령해서 선행함?"이라는 딜레마를 낳음.

2) 사회 계약의 한계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계약에 왜 복종해야 하느냐는 개인의 반론이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이기주의자를 논리적으로 꺾기 어려움.

3) 도덕적 보상의 한계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은밀히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예: 기게스의 반지)에서는 도덕을 지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짐.

2. 내재적 이유

-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 어떤 행위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성질이 나 행동의 본질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인간」은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위와 같이 해석할 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진술이 참되기 위해서 “인간”은 생물학적-동물적-심리적-사회적으로만 볼 수 없는 다른 의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기 때문

■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 東洋: 명덕(明德), 본성(天命之謂性), 양심 (良心), : 性善說의 前提.
- 西洋(Kant): 인간의 선의지(善意志)

<인간의 본성: 동물성·인간성·인격성>

인간: **이성·자유·내적 가치(도덕 주체성)를 가진 존재.**

-인간에게 도덕은 조건적[假言命法]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定言命法]

☞ **의무의 도덕**

-인간 존재의 요청(postulate)으로써 “**자유·영혼불멸·신의 존재**” 가정

·<영혼불멸>: 도덕적 행위의 완성을 위해

·<자유>: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규정하기 위해

·<신의 존재>: 최고선의 존재 인정

-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차원을 갖고 있기는 하되, 그 아무것에도 그것들의 총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이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엄연히 객관적인 존재를 지칭한다.

■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며, 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 **도덕적 자율성**

-도덕·윤리는 <**자유·선택·책임**>을 지닌 **인격으로서 인간 개념을 떠나서 성립 불가능.**

내재적 답변의 한계

1) 도덕적 의무

예외 없는 보편적 도덕률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딜레마 상황에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 어려.

2) 자기 이익

도덕성이 자기 이익보다 더 넓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덕적 행위의 근원을 철저히 자기 이익에만 종속시키는 환원주의적 모순이 발생함.

3) 선택의 문제

도덕을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결단에 맡기면 극단적 가치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관된 도덕성을 지도하기가 어려워짐.

■ 그렇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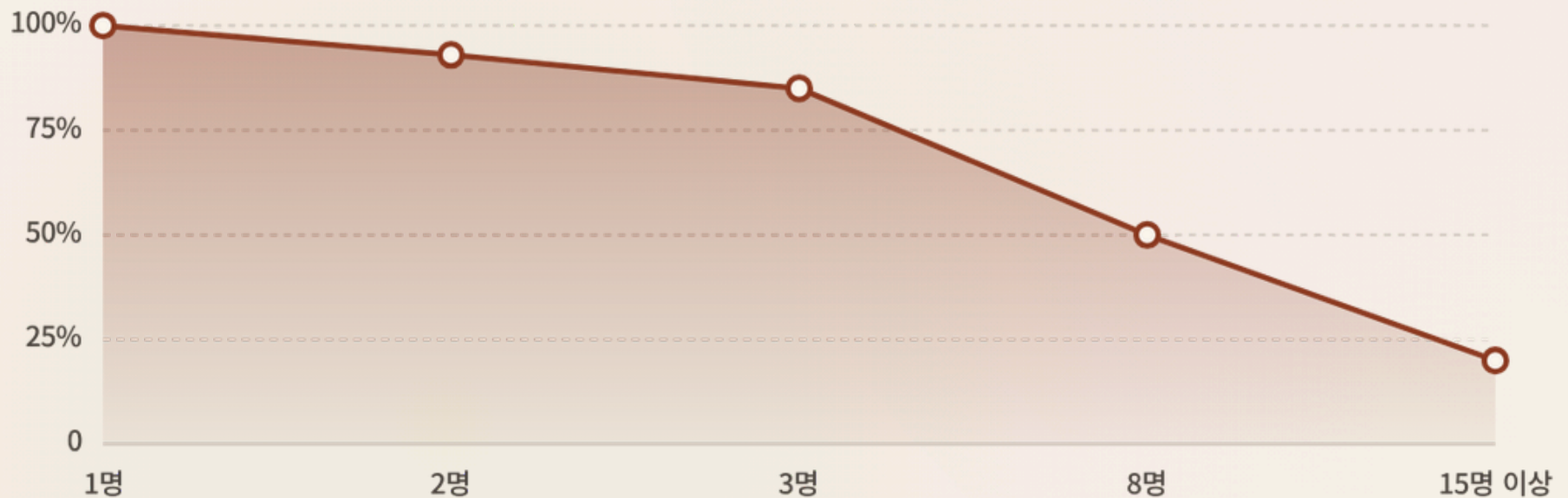
도덕적 범죄자들, 혹은 윤리 도덕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① 이들은 윤리·도덕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어떤 행위가 그릇된 것인지 모르고 있다.

: 도덕적 문맹 혹은 무지(moral or ethical illiteracy, moral blindness, moral ignorance)
cf.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② 윤리·도덕을 벗어난 차원에서 삶을 산다면, 그들은 ‘인간’으로 불리지만, 동물로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인격으로서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링겔만 효과: 집단 규모와 무임승차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협력 기여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비도덕적인 사람은 익명성 뒤에 숨어 **협력의 이득만 챙기**는 **은폐된 이기주의자**로 활동하기 용이해집니다.

소극적 답변과 적극적 답변

도덕과 의미 있는 삶의 필연적 관계

소극적 답변: 극단적 비도덕성의 배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반도체 혁명(실리콘밸리)을 이끈 천재 물리학자 윌리엄 쇼클리임. 그러나 그는 말년에 백인 우월주의와 우생학을 맹신하며 열등한 유전자에 대한 불임 정책을 주장함. 이러한 극단적 비도덕성은 그의 위대한 학문적 성취마저 빛을 잃게 만들었고, **그의 전체 삶을 '의미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

특정 분야(예술, 과학 등)의 탁월한 업적이 인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함, 이는 오직 '극단적으로 비도덕적이지 않아야 함'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선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음.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막대한 부,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그 성취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파괴됨.

소극적 답변의 결론: 따라서,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할 때,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적어도 지극히 비도덕적이지 않은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함에 필수 불가결한 필요조건임"**이라 함.

적극적 답변: 칸트의 자율성과 존엄성

행복할 만한 품격(자격)

도덕은 단순히 행복이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영리한 도구가 아님. 칸트에게 있어 이성적 존재자가 보편적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복종하는 '자율성(Autonomy)'은 무조건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유일한 근거임.

이러한 도덕적 실천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할 만한 품격'을 부여하며, 우리 자신을 목적 그 자체로 끌어올림으로써 가장 숭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해 냄.

사회계약론적 관점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이성적 합의로서의 도덕”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홉스는 도덕과 규범의 기원을 인간의 자기 보존 본능과 이성적인 합의에서 찾는다. 홉스의 근본 원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평화의 추구로 요약된다. 즉, 규범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벌어지는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상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홉스에게 도덕은 선험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무가 아니라, 공멸을 피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실천적인 생존 규칙이다.”

자연 상태 vs. 사회 계약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며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의 상태

이성에 기초한 상호 합의이자 개
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도덕과 국가의 출발점

사회계약론적 관점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파멸을 피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계약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된 규범을 지키며 타인을 해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봄.

이렇게 규범 준수를 통해 유지되는 안정적인 사회 질서는 결국 개인의 생명과 이익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므로, 도덕적 행동은 단순한 억압이나 희생이 아니라 만인의 투쟁이라는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임.

의무론적 관점

“이성과 보편적 법칙으로서의 도덕”

“칸트 윤리학은 도덕의 토대를 행복, 쾌락, 혹은 신의 제시와 같은 경험적이고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하며 시작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도덕이 가져야 할 필연적인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도덕은 상황이나 문화, 개인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법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언명령 vs. 가언명령

결과나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선하고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 명령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

의무론적 관점

- 정언명령의 제1 정식: 보편성의 원리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도덕이 개인의 주관적 편의가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성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정언명령의 제2 정식: 인간 존엄성의 원리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 ‘목적 그 자체’임.

의무론적 관점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함. 도덕법칙에 따르는 것은 신이나 사회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칙에 따르는 ‘자율(autonomy)’적인 행위임. 동물적 본능이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선의지(good will)’를 발휘할 때, 인간은 비로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의 핵심을 실현하게 됨.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이야기함.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선의지 (Good Will)

도덕적 행동의 가치는 결과
가 아닌 동기에 있음.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닌
선의지에 의해, 오직 의
무에 맞게 그리고 의무
자체를 위해 행동해야만
참된 도덕성을 가짐.

정언명령 (Categorical)

도덕 법칙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가언적 명령
이 아니라, 경험적 요소
를 철저히 배제한 채 모
든 합리적 행위자에게 절
대적 필연성으로 작용하
는 보편적 법칙이어야
함.

순수 의무감

이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유일한 동기는 이성에서
비롯된 도덕 법칙 그 자
체에 대한 '존경심'과 순
수한 의무감이어야 하며,
감정이나 쾌락은 불순물
로 취급됨.

결과주의적 관점

“최대 행복과 사회적 효용으로서의 도덕”

“결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인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전적으로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둔다. 공리주의의 근본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된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의 쾌락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킨다면 그 행위는 옳고,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면 그르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에게 도덕은 추상적인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행복과 고통을 다루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 vs.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쾌락에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

사회 구성원 각자가 느낄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사회 전체의 쾌락 총량을 극대화

결과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사회 전반의 안정과 신뢰가 쌓인다고 봄. 이렇게 형성된 안정적인 사회는 결국 개인의 장기적인 행복과 이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므로, **도덕적 행동은 단순히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자신의 행복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

덕 윤리적 관점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선으로서의 도덕”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칙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덕 윤리 (Virtue Ethics)는 ‘행위자’의 성품과 인격에 주목한다. 이 관점은 윤리적 질문의 프레임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

• 목적론적 세계관과 에우다이모니아

만물의 목적 (Telos):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을 가짐.
‘선’의 의미: 자신의 목적을 탁월하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good)’

인간의 궁극 목적 ->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이성적 능력의 탁월한 발휘. 이성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삶.

덕윤리적 관점

덕 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우다이모니아)**, 즉 **완전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도덕적(유덕한)이어야 함**. 여기서 도덕적 삶은 행복을 얻기 위한 별개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 유덕한 성품을 함양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인간답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 따라서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덕 윤리의 대답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 온전히 실현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임.

사회생물학과 도덕

“인간은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가?”

-다윈주의와 도덕의 기원/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다윈주의 논리는 생명의 계층 구조에서 살아남아 자연선택이라는 여과지를 통과하는 단위가 이기적인 경향을 지닐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세상에 살아남는 단위들은 경쟁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생존에 성공한 단위들이다. 이 맥락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그 작용이 어느 수준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뒤쪽 단어(유전자)를 강조했을 때, 이기적 유전자란 개념은 자연선택의 단위(이기주의 단위)가 이기적 생물도, 이기적 집단이나 이기적 종, 이기적 생태계도 아니라, 이기적 유전자임을 드러낸다. 오랜 세대에 걸쳐 살아 남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정보형태의 유전자다. 유전자와 달리 생물이나 집단이나 종은 이런 의미의 단위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실체이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에 대해 자신의 이기적 생존을 도모하는 방법

☞ “생물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유전자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상황”

-친족 이타주의: 유전적 친족관계 (Genetic Kinship)

친족이 같은 유전자 사본을 공유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음.

-호혜적 이타주의/ 공생 (Reciprocation).

호혜적 이타주의는 개체가 다른 개체를 돕지만, 그 도움에 대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진화적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설명. 인간 사회에서의 친구 간 상호 도움, 늑대나 돌고래 무리에서 서로 먹이를 나누거나 사냥을 돕는 행동

티포택전략(Tit-For-Tats)

이타주의의 이차적 요소들

-평판(reputation)

언어와 소문: 인간은 언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소문을 통해 서로에 대한 평판을 형성함. 이 평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함.

생존의 주요 조건: 평판이 좋은 사람은 사회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협력의 기회를 많이 얻게 됨.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원을 얻고,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예를 들어, 평판이 좋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됨. 이는 결국 생존과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음.

-과시적 관대함 (Conspicuous Generosity)

이는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대함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과 평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함.** 우리의 수렵-채집인 조상들 중 이타적으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공정함을 추구했던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이기적인 집단보다 더 잘 생존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김. 그 결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감정과 행동 경향성이 우리의 유전자와 뇌 구조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임.**

나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도덕 교육적 관점에서 본 세 가지 대안적 답변

교육 관점에서 도덕적 필요성에 관한 세가지 답변

조화의 추구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임.

미덕의 습관화

올바른 품성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상의 도덕적 실천을 반복하여 이를 완벽히 내면화함.

긍정적 정서 고양

자긍심, 감사, 공감 등의 긍정적 감정이 도덕적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고 올바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끔.

1. 이타심과 이기심의 조화

- ▶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만을 도덕성이라 부를 수는 없음.
- ▶ 과도한 이타심은 도움을 받는 타인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며, 스스로의 삶도 어렵게 만듦.
- ▶ 이성의 작용을 통해 나비와 타인 모두에게 유익한, 가장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행동의 지점을 찾아야 함.
-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

합리성과 상호 존중의 원리

합리적 판단의 수단

합리성 자체가 우리에게 도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복잡한 상황에서 이타심과 이기심의 최적의 조화를 찾는 훌륭한 수단이 됨. 이성을 통해 도덕성이 적절히 작동할 때,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합리적 가치를 지님.

자율성과 보편성의 획득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스스로 삼가는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자율적 권위를 극대화함. 이는 인간의 공통적 본성에 기초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강력한 보편화 가능성을 갖음.

2. 미덕의 습관화와 품성

- ▶ 인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목표로 삼아 자신을 빚어가는 존재임.
- ▶ 훌륭한 품성, 즉 미덕을 갖추려면 일상생활에서 일관되게 도덕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
- ▶ 미덕은 단순히 남의 눈을 의식한 한두 번의 선행이 아님. 몸에 완전히 익고 내면화될 때 비로소 완성됨.
- ▶ 이러한 올바른 습관은 우리가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항상 가장 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냄.

3. 긍정적 정서의 고양

도덕성은 결코 차가운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산물이 아님.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내면의 정서적 반응에 의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받음.**

자긍심, 공감,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가 도덕적 삶의 형태에 기꺼이 즐겁게 투자하도록 도움.

이러한 정서는 우리의 안녕감을 크게 증가시키며,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자 연료가 됨.

도덕적 정서의 작용 형태

자긍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했을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게 함.

공감과 동정

타인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돕고자 하는 강력한 이타적 동기를 유발함, 동시에 타인에게 해가 되는 공격성을 억제함.

존경과 감사

타인의 선행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느끼는 정서로, 수혜자 자신에게도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새로운 도덕적 동기를 부여함.